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Weekly 2023년 제87호
2023.12.28.(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국 정책·통상 이슈

【미국】美 재무부, IRA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드라인 발표

【미국】美 바이든 행정부, 전기차 등 中 제품에 관세 추가 인상 검토

【한국·네덜란드】한수원, 내달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착수 예정

주요 산업별 이슈

【반도체】美 상무부,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조사 착수 예정

【철강】EU, 독일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환 위한 26억 유로 규모 보조금 승인

【식량】인도 양파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양파 대란 발생

주간 이슈 포커스

【중동, 물류】예멘 후티 반군發 홍해 물류 리스크 대두...국제 물류 운임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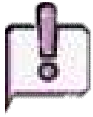
원자재 뉴스 PLUS

【12.3주 원자재 동향】中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對韓 영향은 제한적

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한국무역협회,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원료(Feedstock) 확보 방안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주요국 정책·통상 이슈



미국

美 재무부, IRA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드선스 발표

- 📌 12.22일(현지시간) 美 재무부는 수소 생산 1kg당 최대 3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45V) 잠정 가이드선스를 발표
 - » 해당 가이드선은 ▲수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적격 청정수소, ▲적격 청정수소 생산시설 등 법령 주요 용어의 정의와 수소 생산 공정의 배출량에 따른 4단계 수소 생산세액공제 등의 내용을 포함
 - » 임금 및 견습생 요건을 충족하는 수소 생산시설의 경우, 수소 생산의 수명주기 배출량*에 따라 생산된 수소 1kg당 0.6달러에서 최대 3달러까지 공제 가능
- *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최신모델인 45VH2-GREET에 의해 결정
- 📌 세액공제는 '33년 이전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수소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되며 에너지 속성 인증서(Energy Attribute Certificate, EAC)의 경우 3대 원칙* 충족 의무
 - * (추가성) 수소 생산 시 3년 내에 신규 건설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전력 공급 필요 / (지리적 상관성) 수소 생산설비와 동일한 지역으로부터 전력 공급 필요 / (시간적 상관성) 수소 생산과 동 시간대 공급 전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간별 매칭
- » 60일간의 의견서 수렴 이후 최종 지침을 확정할 예정으로, 산업부는 우리 업계 의견 반영을 위해 필요시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

출처: 산업부 보도자료('23.12.26)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미국

美 바이든 행정부, 전기차 등 中 제품에 관세 추가 인상 검토

- 📌 12.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전기차 배터리팩·태양광 제품 등 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 » 미국은 현재 中 전기차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여하고 있으며, 中 일부 소비자재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고려하는 대신 자국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한 전기차 및 청정에너지 제품 관세 인상을 검토 중
- 📌 현지 언론은 바이든 정부가 '24년 대선에서 對中 견제 이미지 구축을 꾀하고 있으나, 저렴한 전기차의 美 시장 접근을 방해해 청정자동차로의 전환이 더뎠을 수 있다고 지적
- » 美 전기차 또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 中 배터리팩이나 태양광 소재 등을 수입하고 있을 경우, 美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

출처: 월스트리트저널('23.12.21)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한국·네덜란드

한수원, 내달부터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착수 예정

- ① 12.25일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내달 네덜란드 보르셀(Borssele) 지역 원전 2기 신규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예정
 - » 지난 12.13일(현지시간)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한수원은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하며 네덜란드 원전 수주 참여 공식화
 - * 한·네덜란드 정부는 원전·반도체·ICT·재생에너지 등 공급망 뿐만 아니라 디지털·교육·문화 등 산업 다방면에서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 » 양국 정부는 기술 타당성 조사 계약과는 별도로 양국 원전 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 간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② 네덜란드 정부는 '35년까지 보르셀 지역에 신규 원전 2기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네덜란드 전력 수요의 9~13%를 원전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
 - * 1기당 발전량 1,000 ~ 1,600MW
 - » 경쟁사인 美 웨스팅하우스, 佛 프랑스전력주식회사(EDF)도 기술 타당성 조사에 함께 착수하며 원전 수주를 위한 경쟁 본격화 전망

출처: 매일경제('23.12.25)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주요 산업별 이슈

반도체

美 상무부,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조사 착수 예정

- ① 12.21일(현지시간)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24.1월부터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힘
 - * 레거시(legacy) 반도체 : 구세대 공정으로 제조한 28 μ m(10억분의 1m) 이상 반도체로, 첨단반도체보다 성능은 떨어지나 자동차·가전·스마트폰 등 전방위로 활용됨
 - » 동 조사는 미국 내 중국 범용 반도체 의존도를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자동차·국방·항공우주 등 반도체를 활용하는 기업 100여 개사의 반도체 조달 및 사용 방법이 조사 대상이 될 전망
 - »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내 레거시 반도체 시장이 철강·태양광 시장과 같이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에 따른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 조사 이후 관세 부과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보도
- ② 美 상무부는 금번 조사 결과를 '22년 시행한 반도체법 보조금 책정에 활용할 예정이며, 안보와 직결된 방산기업들은 공급망에서 단계적으로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힘
- » 또한 이번 조사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 ▲레거시 반도체 생산의 공정경쟁 촉진, ▲중국에 의한 미국 안보 위협 축소 등의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덧붙임

출처: 블룸버그('23.12.22), 한국경제('23.12.22)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철강

EU, 독일 철강산업의 친환경 전환 위한 26억 유로 규모 보조금 승인

- 📌 12.19일(현지시간) EU 집행위는 수소를 이용한 독일 철강산업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26억 유로 (약 3조 7,189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승인
 - » 이번 보조금은 독일 내 기존 고로 및 산소전로를 직접환원제철 및 신규 전기아크로로 대체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며, 주로 저탄소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에너지를 사용, 철강 생산 공정의 천연가스 수요를 단계적으로 대체할 방침
 - » 독일 철강산업은 높은 전기요금에 고전하고 있는 상황으로 독일 내 철강생산은 '22년 8% 감소에 이어 올해 약 4% 추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
- 📌 독일 경제부는 이번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들이 연간 12만 톤의 녹색수소를 사용하여 3백만 톤의 친환경 철강을 생산, 연간 약 4백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할 것으로 추산
 - » 로베르트 하벡 독일 경제부 장관은 금번 승인된 보조금이 철강산업을 포함한 독일 산업 전체의 친환경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출처: KBA Europe('23.12.20)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식량

인도 양파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양파 대란 발생

- 📌 12.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최근 인도 정부가 현지 양파 가격 안정을 위해 '24.3.31일까지 양파 수출을 금지했다고 보도
 - » 인도의 12.8일 양파 수출 금지 조치 이후 방글라데시 양파 가격이 130타카(약 1,540원)에서 200타카(약 2,370원)로 상승했으며, 네팔에서도 양파 가격이 두 배 이상으로 치솟는 등 인도 인근 교역국의 야채 가격 상승세 가속화
- 📌 로이터통신은 인도 정부가 '24.4월 총선을 앞두고 자국 내 물가 안정화를 위해 양파 수출 금지라는 강수를 두었다고 분석
 - » 금년 인도의 여름 강수량이 12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불규칙한 장마가 반복되면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해 밥상 물가가 크게 올랐으며, 이와 관련해 인도 수출업체 관계자는 “내년 총선 전까지 수출 금지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
 - » 인도는 전 세계 양파 무역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식 대부분에 양파가 필수 재료로 쓰이는 네팔·방글라데시 등 인도 인접국가의 양파 수급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

* 인도의 금년도 양파 수출량은 250만 톤으로, 연간 수출량 중 67만여 톤은 방글라데시·네팔 등에 수출

출처: 로이터통신('23.12.20), 조선일보('23.12.21)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주간 이슈 포커스

중동, 물류

예멘 후티 반군 발흥해 물류 리스크 대두...국제 물류 운임 급등

- 11.19일(현지시간) 이후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 대상 공격을 자행함에 따라 주요 글로벌 해운사들의 홍해 해협 운항 중단이 잇따라 발표, 해상운임 상승세 가속화
- * 후티(Houthi): 예멘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시아파계 근본주의 집단으로, 친하마스 세력으로 분류되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군 조직
- ▶ 홍해-수에즈 운하 경로* 대신 아프리카 남단 우회 시 약 9,000km의 추가 운항 필요, 中 컨테이너 선사 85%의 홍해 항로 포기 등에 따른 국제 해상운임 가파른 상승세 지속
- * 수에즈 운하는 연간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0%, 상품 무역량의 12%를 차지하는 주요 해상 교역로로 해당 항로 운항 중단 시, 인도양 → 남아공 희망봉 → 지중해 우회 경로 이용이 불가피

홍해 물류 리스크 개요

발단	▶ (11.19) 예멘 반군의 홍해해협 통과 민간 선박에 미사일·드론 공격		
전개	▶ (11.25) 이스라엘 기업 소유의 컨테이너선, 인도양에서 무인기 공격 받아 선체 일부 손상		
	▶ (12.3) 美 해군 구축함 '카니'와 파나마 화물선 및 상업용 선박 후티 반군 드론 공격에 피격		
	▶ (12.4~16) 주요 글로벌 해운회사 선박 미사일 및 무인 드론 공격으로 화재 등 피해 발생		
	▶ (12.15~16) MSC(스위스), Maersk(덴마크) 등 주요 해운사 홍해 해협 운항 중단 발표		
	▶ (12.18) 글로벌 정유사 BP 홍해 해협 통한 원유 수송 잠정 중단 발표		
피해 현황	📍 국제 해상운임 급등 야기		
	상하이항 출발 기준 주요 항로 운임 동향		출처: 계면신문('23.12.23)
		12.4주 운임	전주비
	유럽	1,497 USD / TEU*	45.7%
	지중해	2,054 USD / FEU*	30.9%
	페르시아만	1,477 USD / TEU	25.7%
* TEU: 20피트 컨테이너 / FEU: 40피트 컨테이너			
대응	▶ 홍해 상선위협 대응 다국적 안보 구상을 통한 항로 안전 확보		
비고	▶ 12.21일 기준 우리나라 상선에 대한 공격 등 피해 상황 보고된 바 없음		

- 📍 세계 2위 해운기업 머스크(Maersk)社は 미국 등 연합군이 개시한 '번영의 수호자 작전(Operation Prosperity Guardian)*'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 홍해 항로 선박 운행을 재개함으로써 업계 불안 심리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美·英·佛 등 10개국이 참여하는 홍해 남부·아덴만 안보 공동 대응을 위한 다국적 안보 구상

- ▶ 해운사들의 홍해 항로 복귀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나, 후티 반군이 위협을 지속하고 있어 물류 완전 정상화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출처: 로이터통신('23.12.25), KOTRA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23.12.26)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희소금속

中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對韓 영향은 제한적

12.21일(현지 시간) 中 상무부·과학기술부는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 공고를 통해 **희토류 정제·가공·활용 관련 4개 기술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 [출처: 산업부 보도자료(23.12.22.)]

- 동 개정안은 '22.12월부터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공고를 통해 확정
-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제한 조치로 **희토류 품목이 아닌 기술에 한정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주로 정·제련된 희토류를 수입 및 가공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힘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2월 3주)

◆ [비철금속] 동 공급차질 우려로 동 가격↑, 美 연준 긴축정책 완화 전망으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2년	'23.11월	전년비(%)	12.2주	12.3주	전주비(%)
동	8,797	8,492	△3.5	8,337	8,458	1.5
니켈	25,605	21,971	△14.2	16,382	16,499	0.7
아연	3,478	2,662	△23.4	2,452	2,559	4.4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동) 美 연준 긴축정책 완화 기대 및 위험자산 투자 선호 개선에 따라 전기동 가격 상승압력이 발생했으며, 메이저사의 광산 채굴 차질에 따른 내년 동 수급상황 악화 전망도 상기 가격 상승이 심화하는 것으로 분석

(니켈) 美 연준 긴축정책 완화에 따른 투자수요가 개선되면서 니켈시장 가격 상승압력이 발생했으나, 중·인니 정련니켈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상승압력이 부분적으로 상쇄

▶ 런던금속거래소(LME)의 12월 3주차 니켈 재고량은 52,643톤으로 전주대비 8.1% 증가, 6주 연속 증가세로 니켈 공급과잉에 따른 재고량 증가세 지속

◆ [철강] 中 철광석 재고량 확대로 철광석 가격↓, 中 경기부진으로 유연탄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2년	'23.11월	전년비(%)	12.2주	12.3주	전주비(%)
연료탄	348.65	176.97	△49.2	145.67	140.53	△3.5
원료탄	364.99	292.63	△19.8	326.80	320.13	△2.0
철광석	120.26	117.42	△2.4	136.48	136.32	△0.1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분광)

(철광석) 中 주요 지역 환경규제 시행에 따른 조강생산 제한조치 시행 下 재고량 확대로 철광석 하방압력 발생

(유연탄) 12.3주차 국제유가(WTI)가 배럴당 73.56달러로 전주대비 3%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연탄 가격은 中 경기불안 지속으로 하방압력 발생

▶ 연료탄 일일가격은 톤당 140달러 초반선에서 박스권 횡보 지속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12월 3주)

◆ [희소금속] 철강·이차전지 분야 수요 부진 속에 가격↓ 지속, 정체된 영구자석 분야 수요 지속으로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코발트: U\$/lb)			주간평균 (U\$/톤) (코발트: U\$/lb)		
	'22년	'23.11월	전년비(%)	12.2주	12.3주	전주비(%)
페로망간	1,551	1,278	△17.6	1,130	1,115	△1.3
탄산리튬	72,290	37,794	△47.7	13,619	13,602	△0.1
수산화리튬	67,180	38,107	△43.3	14,038	13,910	△0.9
코발트	31.20	17.90	△42.6	16.56	16.67	0.7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380,494	325,941	△14.3	379,900	376,400	△0.9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133,607	79,647	△40.4	64,260	63,760	△0.8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페로망간) 中 제강업계의 페로망간 현물 수요 부진과 시장참여자들의 부정적 시장 전망속 가격 하락세

📍 (탄산리튬) 이차전지·전기차 제조사의 연말 생산 재고 감축, 보유 원료 재고 활용한 생산으로 탄산리튬 현물수요 부진 지속

» 中 수산화리튬 내수가격도 소폭 하락했으며, 수출가는 韓 등 주요 수입국의 12월 수요 감소 및 생산 재고 증가로 kg당 16~18달러 수준으로 하락

📍 (코발트) 최근 이어진 가격 하락에 따른 주요 생산업체의 낮은 생산마진 구조로 제안가격을 올리며 가격 소폭 반등

» Chemical 등급 제품에 대해서는 예상대비 수요가 부진했던 반면, Alloy 등급 제품 수요는 코로나 팬데믹 후 항공분야 수요 등이 반등하여 상호 가격 이격 심화

📍 (희토류) 영구자석 분야의 매우 저조한 수요가 이어지며 관련 품목 가격 소폭 하락, 시장참여자들은 공급업체들의 악화된 현금흐름 및 재고 증가로 단기적 가격 하락 전망

◆ [에너지] 홍해지역 수송 리스크 증가, 中 원유 수입 쿼터 추가 부여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세

품목	연평균 (\$/배럴)			주간평균 (\$/배럴)		
	'22년	'23.11월	전월비 등락폭	12.2주	12.3주	전주비 등락폭
두바이유	96.41	83.55	-6.20	75.01	77.72	2.71
브렌트유	99.04	82.03	-6.67	75.34	79.07	3.73
WTI	94.33	77.38	-8.09	70.48	73.50	3.02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국제 유가) ▲홍해 해상 안보 불안 고조에 따른 수송 리스크 증가, ▲中 원유 수입 쿼터 추가 부여, ▲美 달러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유가 상승, ▲美 원유재고 증가, ▲美 연준 관계자들의 시장 진정을 위한 발언 등은 상승폭 제한 요인으로 작용



공급망 더 알아보기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원료(Feedstock) 확보 방안



[작성]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참고] KITA TRADE FOCUS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한 원료 확보방안
_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회수시스템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23.11.28.)

중국, EU,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설비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폐배터리, 배터리 제조 시 발생하는 불량 배터리 및 스크랩 등 재활용 원료는 44만 톤으로 '23년 기준 재활용 설비용량인 120 만 톤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경제성을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재활용 원료의 원활한 공급이 필수적이며 체계적인 전기차 배터리 회수시스템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유럽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알아보자.

🌐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동향

- ▶ (재활용 원료의 부족) '23년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설비용량은 전처리 설비 120만톤, 후처리 설비 125만 톤으로서, 배터리 재활용 원료 44만톤은 설비용량의 약 1/3 수준에 불과
 - 배터리 재활용 원료*는 '22년 32만 톤, '23년 44만 톤에서 사용 후 배터리의 급증으로 '40년 620만 톤에 달할 전망
 - *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는 사용 연한이 다한 폐배터리(spent battery)와 배터리 및 양극재 생산 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스크랩(scrap)으로 나뉨
- ▶ (스크랩 및 블랙매스 확보)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업들은 재활용 대상인 스크랩 확보를 위해 노력 중
 - (스크랩 확보) 전기차 및 배터리의 제조사는 배터리 제조과정에서 나온 스크랩에서 원료를 추출한 후 배터리 제조에 다시 사용하는 폐쇄루프(closed-loop) 방식을 선호하며, 전처리 및 후처리 기술력을 가진 재활용 전문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JV)을 구축하는 추세임
 - (블랙매스의 역외유출 제한 움직임) EU는 블랙매스를 유해폐기물(Hazardous waste)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역내 배터리 재활용 원료의 해외 수출을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
 - * 유럽에 진출한 글로벌 재활용 기업들은 폐배터리 및 스크랩을 블랙매스로 제조하는 전처리 공장을 유럽에 설치, 블랙매스를 후처리 공장이 있는 국가로 수출 후 원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최근 EU 핵심원자재법 수정안에 '리튬이온 배터리와 블랙매스'에 대한 폐기물 코드 도입이 제기되었음
- ▶ (사용 후 배터리 회수)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25년 이후 급증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유럽의 사용 후 배터리 회수 산업

- ▶ (EPR제도) EU 배터리법에 의거, '25년 8월 18일부터 EU의 모든 회원국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등을 포함한 모든 배터리에 대해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을 시행할 예정

- EU회원국에 전기차 배터리를 처음 유통하는 생산자(Producer)에게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책임이 부과됨
- 생산자는 EPR의무를 재정 및 운영을 대신 담당하는 법인인 생산자 책임기구(PRO, Producer Recycling Organization)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책임을 대행시킬 수 있음
- PRO는 배터리 생산자가 지불하는 EPR 부담금과 재활용으로 인해 얻는 이익을 수익원으로 삼아 재활용 사업을 수행하며, 생산자 대신 재활용률을 정부에 보고

〈네덜란드의 PRO인 ARN〉



- ▶ (전기차 배터리 전용 회수기업) 다국적 연맹 조직, 소형배터리 회수에서 사업확장, 폐기물 전용 회수기업의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유럽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전용 회수기업들이 성장 중
- 유럽 내 5개국 회원국의 재활용 수거기업이 리튬이온 배터리 수거에 특화해 배터리 회수 서비스 연맹인 Reneos를 결성
 - 소형 배터리 전문 회수연맹이었던 EUCOBAT이 전기차 배터리 회수까지 사업을 확장
 - 폐기물 전문 회수기업인 Interzero Circular Solutions이 리튬이온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에 특화한 회수 및 재활용 전문 기업인 Simpli Return 설립

〈전기차 배터리 전용 회수기업〉



- ▶ (안전한 운송 및 화재 대응)
- 유럽은 배터리 운송정보 사이트 Batteries Transport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배터리가 수거 및 운송될 때 지켜야 할 국제 운송법률을 안내함
 - 노르웨이에서는 정부기관인 시민보호국(DSB)에서 전기차 및 충전에 대한 화재 및 폭발 방지 가이드를 작성해 배포

📌 우리나라는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다음의 배터리 재활용 원료확보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1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한 배터리는 지자체 반납의무이나 정부 반납 의무가 없는 민간 소유 배터리는 많은 양의 배터리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음

- ▶ (국내 회수시스템 구축)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법 제정 △회수등록-운송-검사-가격산정-재사용 및 재활용 분류의 단계별 시스템화 △사용 후 배터리의 제품화를 위한 성능검사 및 인증 관리, 국제 표준화 촉진, 전문 기술인력 양성 지원 △배터리 판매, 유통, 재사용 및 재활용 현황을 종합 파악할 '재활용 원료 관리센터' 운영
- ▶ (해외 배터리 원료확보) △단기적으로는 유럽의 블랙매스 수입, 장기적으로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현지 진출 △폐배터리 수입완화 정책 추진 △블랙매스, 재사용·재활용 폐배터리에 대한 세분화된 HS코드 신설 △바젤협약 등 폐기물 관련 국제협약 이니셔티브 적극 참여

글로벌 경제지표 (23.12.27.수)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21말	'22.말	'23.11말	12/22	12/26	12/27	전일비	22말비
₩/US\$	1,188.80	1,264.50	1,290.00	1,303.00	1,294.50	1,294.20	△0.02%	2.35%
선물환(NDF, 1월물)	1,190.00	1,265.30	1,287.80	1,300.40	1,292.00	1,290.80	△0.09%	2.02%
₩/CNY	186.51	181.44	180.90	182.39	181.11	181.06	△0.03%	△0.21%
₩/¥100	1,032.48	945.56	877.79	915.93	910.08	907.19	△0.32%	△4.06%
Y/US\$	115.14	133.73	146.96	142.26	142.24	142.66	0.30%	6.68%
US\$/EUR	1.1318	1.0617	1.0974	1.0998	1.1024	1.1043	0.17%	4.01%
CNY/US\$	6.3681	6.9630	7.1244	7.1474	7.1431	7.1467	0.05%	2.64%

* 22년 평균 환율: (₩/US\$) 1292.2원, (₩/¥100) 983.8원,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S\$) 1306.0 (₩/¥100) 931.7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2년 최저(해당일)	'22.12.31	'23.12.18(전일)	'23.12.19	전일비	'22년최저비	'22년말비
원유(두바이)		71.83(12.12일)	78.77	78.84	79.12	0.3	7.3	0.4
						0.4%	10.1%	0.4%
철광석		79.50(10.31일)	117.35	138.00	140.00	2.0	60.5	22.7
						1.4%	76.1%	19.3%
비철금속	구리	7,000.00(7.15일)	8,387.00	8,460.00	8,499.00	39.0	1499.0	112.0
						0.5%	21.4%	1.3%
	알루미늄	2,080.00(9.28일)	2,360.50	2,180.00	2,234.50	54.5	154.5	△126.0
						2.5%	7.4%	△5.3%
	니켈	19,100.00(7.5일)	30,425.00	16,670.00	16,360.00	△310.0	△2740.0	△14065.0
						△1.9%	△14.3%	△46.2%

반도체

	'21	'22	'23.9월	'23.10월	'23.11월	12/22	12/25	12/26	12월(~26)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3.99	3.07	1.48	1.55	1.66	1.75	1.75	1.75	1.74
(%, YoY)	29.9%	△23.0%	△41.3%	△35.6%	△23.1%	△12.7%	△12.6%	△12.4%	△14.9%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55	7.25	6.32	6.40	6.42	6.36	6.35	6.35	6.39
(%, YoY)	14.7%	10.7%	△3.8%	△2.6%	△1.7%	△2.7%	△2.9%	△2.8%	△2.2%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21.12.31	'22.12.30	'23.12.1	12.8	12.15	12.22	전주비(12.15)	'22년말비
SCFI	5046.66	1107.55	1010.81	1032.21	1093.52	1254.99	14.8%	13.3%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21.12.24	'22.12.23	'23.12.18	12.19	12.20	12.21	12.22	전일비(12.21)	'22년말비
BDI	2217	1515	2288	2219	2150	2087	2094	0.3%	38.2%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https://moaform.com/q/lflGnB>



카카오톡 채널 구독 신청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

협력기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Korea Petro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한국섬유산업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ies



한국수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동조합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지산업협회
Korea Battery Industry Association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Korea Specialty Chemical Industry Association



한국철강협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Korea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전략물자관리원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